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사회 · 문화** 정답 및 해설

01. ③ 02. ④ 03. ① 04. ③ 05. ④ 06. ⑤ 07. ② 08. ① 09. ④ 10. ②
11. ② 12. ⑤ 13. ④ 14. ① 15. ⑤ 16. ① 17. ④ 18. ① 19. ⑤ 20. ③

1. 사회 · 문화 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 ㉢과 같은 현상은 사회 · 문화 현상이고, ㉠, ㉡과 같은 현상은 자연 현상이다. ③ 사회 · 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사회 · 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② 자연 현상은 사회 · 문화 현상과 달리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④ 자연 현상은 보편성만 나타나고, 사회 · 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 ⑤ 사회 · 문화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아니라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2. 사회 ·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파악

정답 해설: 사회 ·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기능론이다. ④ 기능론은 사회 유기체설에 기초하여 사회 각 부분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본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 ②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③ 사회적 지위가 기득권층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 ⑤ 사회 제도를 통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재생산된다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3. 관료제와 탈관료제 이해

정답 해설: A는 탈관료제, B는 관료제이다. ① 규약과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는 관료제는 구성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탈관료제에 비해 구성원의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탈관료제에 비해 관료제는 업무 수행의 안정성이 높다.
- ③ 탈관료제와 달리 관료제는 경력에 따른 보상과 승진이 중시되고,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되므로 조직 내 무사안일주의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 ④ 관료제와 달리 탈관료제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⑤ 특정 구성원의 권한 남용 문제를 방지하려면 의사 결정 과정에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평적 의사 결정 구조의 강화’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4. 문화의 속성 파악

정답 해설: 부족 여성들의 특정 행위가 어머니로부터 배워 계승된다는 점이 부각되어 있으므로 A는 학습성이고, 독특한 점프 동작을 통해 부족 구성원들이 부족 전사들의 용기와 인내를 상기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 있으므로 B는 공유성이다.

- ㄴ. 야구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응원 동작을 보고 따라 하며 익히는 것은 학습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ㄷ. 문화가 공유성을 갖는다는 것은 문화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와 맥락 속에 존재하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짐을 의미하는 것은 축적성이다.
- ㄹ.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현금 거래가 감소하는 것은 변동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5. 양적 연구 이해

정답 해설: ㄴ. 같은 지방 자치 단체 A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으므로 2차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 ㄷ. 갑의 연구 결과 등록금 지원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업 지속 의사의 증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방 자치 단체 A가 대학생들의 학업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시범 사업의 확대 시행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갑의 연구에서 표본은 지방 자치 단체 A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학생 2,000명이다.

6. 대중문화의 문제점 파악

정답 해설: ⑤ 실제 통계, 인터뷰 원본, 팩트 체크를 버리고 미확인 루머, 낚시성 키워드, 선정적 사진을 활용해 대중문화를 생산하는 것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자극적인 문화를 양산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②, ③, ④ 제시된 그림을 통해 파악할 수 없다.

7.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제도에 따르는 행위가 실제로는 자발적인 것인데, 그것을 필연인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자기기만이라는 점과 인간이 선택의 가능성은 가진 존재임을 강조하는 필자의 관점은 사회 명목론이다.

- ㄱ. 사회 명목론은 사회가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고 보므로 사회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ㄷ. 사회 명목론은 사람들이 수용하고 따를 때 비로소 규범이 형성되고, 행위의 규칙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므로 사회가 개인이 옳다고 믿는 규범 속에서 작동한다고 본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있다고 보는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다.
- ㄹ. 개인이 사회 체계 내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다.

8. 사회 운동 이해

정답 해설: ⑦은 A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갑국 주류 문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으므로 갑국에서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의 특성을 갖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⑦에는 갑국에서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반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A 이주민들의 시도가 나타난다.

③, ④ ⑦은 주류 사회에 참여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사회 운동이고, ⑦은 자신들을 주변화했던 주류 사회의 제도와 가치에 저항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사회 운동이다. 따라서 ⑦과 ⑦은 모두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이 아니며,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사회 운동도 아니다.

⑤ ⑦과 ⑦은 모두 A 이주민들의 민족적 정체성 유지 및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회 운동이다.

9. 일탈 이론 이해

정답 해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A, B의 응답이 불일치하므로 A, B 중 하나는 낙인 이론이다.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보는가?’에 대한 A, D의 응답이 불일치하므로 A, D 중 하나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에 대한 B, C의 응답이 불일치하므로 B, C 중 하나는 낙인 이론이다. B가 낙인 이론이고,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에 대한 C, D의 응답은 ‘아니요’로 일치해야 하므로 C, D는 각각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중 하나이다. 정리하면 A는 차별 교제 이론, B는 낙인 이론, C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D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④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의한 무규범 상태, 즉 아노미 상태에 주목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낙인 이론이다.
- ② 일탈의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③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보는 것은 차별 교제 이론이다.

⑤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것은 뒤클램의 아노미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10. 사회 이동과 계층 구조 분석

정답 해설: A에서 B로의 이동, C에서 B로의 이동이 모두 하강 이동이므로 B는 하층이고, A에서 C로의 이동이 상승 이동이므로 A는 중층, C는 상층이다.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세대 간 이동 양상을 나타내면 표와 같다.

(단위: %)

구분		부모 세대			계
		상층(C)	중층(A)	하층(B)	
자녀 세대	상층(C)	5	10	5	20
	중층(A)	10	10	30	50
	하층(B)	5	10	15	30
계		20	30	50	100

② 자녀 세대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하면,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상층이 5명, 중층이 10명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갑의 부모 계층은 중층이고, 을의 부모 계층은 상층이다.

③ 자녀 세대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하면,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는 25명이고,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는 45명이다.

④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고,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⑤ 다이아몬드형인 자녀 세대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인 부모 세대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 실현에 유리하다.

11.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순환론이다.

ㄱ. 순환론은 운명론적 시각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ㄷ. 순환론은 사회가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변동한다고 본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사회 변동이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관점은 진화론이다.

ㄹ. 사회가 미분화된 단순한 상태에서 분화된 복잡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보는 관점은 진화론이다.

12. 문화 변동 분석

정답 해설: ⑤ 갑국에서는 자국에서 개발된 뿐리는 형태의 A의 향수와 을국에서 전파된 바르는 향수가 함께 존재하는 문화 병존이, 을국에서는 자국의 바르는 향수와 갑

국에서 전파된 A의 향수가 함께 존재하는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갑국에서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 ② 을국에 전파된 문화 요소인 향수는 물질문화이다.
- ③ 을국에서는 갑국의 A가 개발한 향수가 직접 전파되었다. 하지만 갑국에서 개발된 뿐리는 형태의 새로운 향수는 갑국의 전통 의례 중 약초즙을 뿌려서 향을 내는 방식에 착안하여 개발되었으므로 자국 전파의 사례가 아니라 발명의 사례이다.
- ④ 갑국에서는 자국의 향수와 을국에서 전파된 향수가 결합하여 새로운 향수가 만들 어지지 않았으므로 문화 융합이 나타나지 않았고, 을국에서는 자국의 향수가 갑국에서 전파된 A의 향수에 의해 대체되어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문화 동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13. 지위 및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이해

정답 해설: ㄱ. 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변호사는 모두 성취 지위이다.

- ㄷ. 자료에 적혀 있는 공식 사회화 기관(고등학교)의 개수와 비공식 조직(사내 혼성 합창단)의 개수는 각각 1개로 동일하다.
- ㄹ. 자료에 적혀 있는 자발적 결사체는 사내 혼성 합창단, 노동조합, 마라톤 동호회, 노동 인권 단체로 4개이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 건설 회사, 사내 혼성 합창단, 노동조합, 마라톤 동호회, 노동 인권 단체, 신문(대중 매체)으로 6개이다. 따라서 자료에 적혀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보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가 2개 많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ㄴ.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 집단은 공동 사회이다. 공동 사회는 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14.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 구분

정답 해설: 질문지법, 실험법은 면접법, 참여 관찰법과 달리 방법론적 일원론을 기초로 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고,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학생의 분류가 4점이므로 C, D는 각각 질문지법, 실험법 중 하나이고, A, B는 각각 면접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실험법은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과 달리 인위적 통제 상황에 처치로 인한 변화를 관찰하므로, D가 실험법이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학생의 분류는 0점이 된다. 따라서 C가 실험법, D가 질문지법이다. 질문지법, 면접법은 실험법, 참여 관찰법과 달리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므로, B가 면접법이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학생의 분류는 1점이 된다. 따라서 A가 면접법, B가 참여 관찰법이다. ①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과 달리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와 생활하며 자연스러운 일상을 살펴본다. 즉,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질문지법인 D만 옳게 분류되었으므로 ⑦은 '1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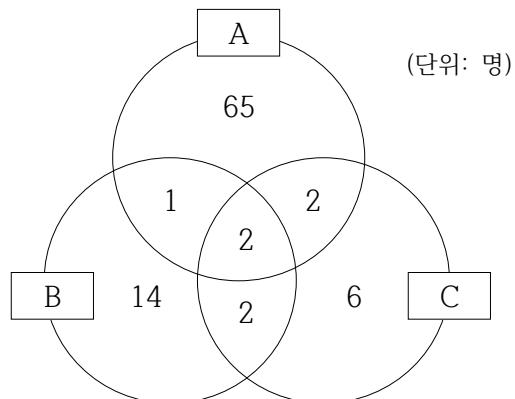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참여 관찰법과 달리 면접법이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이다.
- ③ 실험법은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지 않는다.
- ④ 실험법에 비해 질문지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하다.
- ⑤ 질문지법에 비해 면접법은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활용하기 용이하다.

15. 사회 보장 제도의 수급 현황 분석

정답 해설: A는 사회 보험, B는 공공 부조, C는 사회 서비스이다. 갑국의 20대 청년 실업자를 100명으로 가정하고, A~C의 수혜자 수를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 ⑤ 사회 서비스(C)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6명)는 중복 수혜자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인 공공 부조(B)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5명)보다 많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중복 수혜자 수(7명)는 비(非)수혜자 수(8명)보다 적다.
- ② 사회 보험(A)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65명)는 공공 부조(B)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14명)의 4배를 넘는다.
- ③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 수(93명=100명-7명)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인 사회 보험(A) 또는 공공 부조(B)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86명)보다 많다.
- ④ 비(非)수혜자 수(8명)는 중복 수혜자 중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인 사회 보험(A)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5명)의 2배보다 적다.

16. 사회적 소수자 문제 이해

정답 해설: ① 갑국에서 A는 주류 집단의 제도적 배제로 인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적 차별을 받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을국에서 제정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혜택을 주어 우대하는 정책인 적극적 우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외국인 노동자 A는 언어가 다르다는 문화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고, B는 교통사고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을 받았다. 즉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것은 B이다.

④ 역차별은 부당한 차별을 받는 쪽을 우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반대편에게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갑국의 사례에는 역차별의 문제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장애인을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볼 수 없다.

17. 문화 이해 태도 이해

정답 해설: A는 문화 사대주의, B는 자문화 중심주의, C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④ 모든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문화 사대주의는 자문화를 열등한 문화로 인식한다.

②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문화 이해 태도는 문화 사대주의이다.

③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문화 이해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⑤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를 이해의 대상으로 보고, 문화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18. 세계화의 영향 파악

정답 해설: 제시문에 나타난 세계화로 인한 첫 번째 영향은 개발 도상국이 선진국에 종속되는 경제 구조의 형성이고, 두 번째 영향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각각에서의 소득 불평등의 증가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노동자의 임금 하락은 세계화의 두 번째 영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③ 개발 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는 세계화의 첫 번째 영향으로 제시되었다.

④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경제적 갈등 심화는 세계화의 두 번째 영향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위계적인 분업 체계 형성은 세계화의 첫 번째 영향으로 제시되었다.

19.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이해

정답 해설: ⑦은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절대적 빈곤이고, ⑧은 최소한의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절대적 빈곤이며, ⑨은 한 사회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상대적 빈곤이다. ⑤ 절대적 빈곤과 달리 상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⑦, ⑧은 모두 절대적 빈곤이다.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절대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상대적 빈곤 모두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규정되는 객관적 빈곤이다.
- ③ 각자의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주관적 빈곤이다.
- ④ 경제 성장 이전의 저개발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절대적 빈곤이다.

20. 인구 고령화 현상 분석

정답 해설: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갑국과 을국의 t년과 t+30년(예측)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면 표와 같다.

(단위: %)

구분	t년		t+30년(예측)	
	갑국	을국	갑국	을국
유소년 인구	15	45	15보다 높음	45보다 낮음
부양 인구	60	45	60	45보다 낮음
노년 인구	25	10	25보다 낮음	10보다 높음

- ③ t+30년(예측)에 을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100이고, 노년 부양비는 20보다 크므로 총부양비는 120보다 클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t년에 노령화 지수는 갑국이 $'(25/15) \times 100'$, 을국이 $'(10/45) \times 100'$ 으로, 갑국보다 을국이 작다.
- ② t+30년(예측)에 갑국의 부양 인구 비율은 60%이고, 노년 인구 비율은 25%보다 낮다. 따라서 t+30년(예측)에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50보다 작을 것이다.
- ④ t년 대비 t+30년 유소년 인구가 갑국에서는 증가, 을국에서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갑국에서는 늘어날 것이고, 을국에서는 줄어들 것이다.
- ⑤ t년 대비 t+30년 노년 인구가 갑국에서는 감소, 을국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가 갑국에서는 낮아질 것이고, 을국에서는 높아질 것이다.